

“디지털 대전환에 135조... 中소육성 모태펀드 10조 지원”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

과학기술·산업·교육 등 4대 대전환
공공·금융개혁, 대투자로 비전 완성
“지금 이 성장 대전환 할 골든타임
종합국력 세계 5강 경제대국 목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경제 비전선포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바로 지금이 대전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을 목표로 한 ‘이재명 신경제 비전’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신경제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재명 신경제는 대전환, 세계 5강이라는 담대한 ‘계획’이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 다시 지속 성장의 길을 찾는 ‘지도’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신경제 비전’은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대전환의 4대 대전환과 대전환을 지원하는 ‘공공개혁’, ‘금융개혁’, 그리고 이를 완성하기 위한 ‘대투자’로 이뤄졌다.

이 후보는 4대 대전환 중 과학기술 대전환은 세계 5대 과학강국을 목표로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과 같은 10

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정권 단위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하에 개발이 가능하도록 과감한 지원,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등을 밝혔다.

이 후보는 경제와 연관된 산업 대전환과 관련해선 ▲디지털 ▲에너지 ▲제조업 ▲중소·벤처기업 ▲서비스업 ▲수출 분야로 분류해 세부적인 지원 방침을 내놨다.

디지털 분야 대전환을 위해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선제적 구축과 미디어 전 산업 분야 확장, 안심데이터 도입으로 확장된 디지털 영토의 혜택이 모든 국민과 기업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 국

극적으로 약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일자리 등을 마련한다.

또,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전지·풍력·에너지 저장장치와 이를 활용한 친환경 미래차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서둘러 개발하고, 기후대응기금 확충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통해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조업 성장을 위해서는 주력산업 제조공정의 디지털 혁신과 아직 취약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소부장 핵심국가로 도약하고, 규제 완화 등을,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10조원, 기술보증보증 규모 2배 확충 등을 지원하겠

다고 밝혔다.

서비스업 분야에 대해서도 “서비스업의 발전 없이는 국민소득 5만 달러는 어렵다”며 ‘문화선도 국가’를 목표로 서비스업을 성장 산업으로 키우고, 세계 일류 콘텐츠 개발에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고, 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현재 69개년 세계 1등 수출 제품을 100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수출지원체제 강화와 메타버스 무역플랫폼 등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교육 대전환에 대해 대학이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게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바꾸고, 대학도시 건설 추진, 온라인 중심 대학교육을 확대 등을 공약했다.

또, 국토 대전환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닌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라며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만들어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5극3특’이란 우리나라를 5개의 초광역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구역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고속철도 중심으로 국가 교통체계 재편과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항공교통망 구축,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과 수도권·광역시의 주요 고속도로의 지하화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의 거

점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네 가지 대전환은 지금, 반드시, 실현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지금 세계는 전환의 속도를 놓고 경쟁 중이다. 길어도 5년 내에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대전환을 지원하는 두 가지 개혁과제 중 공공개혁에 대해 공직사회 개혁과 개방형 임용제 확대, 기획 예산 기능 개편 등을, 금융개혁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 제재, 장기투자 인센티브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신경제의 성공은 결국 투자에 달려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면서 과감한 대투자를 추진하겠다”며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기업 하기 좋은 ‘규제 프리국가’, ‘혁신의 자유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세계 5강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속도와 확산, 실용, 희망이라는 4대 원칙을 바탕으로 “성장 앞으로, 공정 제대로, 대한민국 세계 5강을 이재명 신경제가 해내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임대료 나눔제 도입... 아기 낳으면 월 100만원 지급”

윤석열, 신년 기자회견

“코로나·양극화 위기, 도약 기회로
국가 운영, 국민 중심으로 전환
P코로나 대비 공공정책 수가 신설
공공책임제로 의료적 재앙 대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는 전무후무한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상황과 저성장·양극화·저출생의 심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

수동 소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책임 있는 변화’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란 주제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국가 운영을 국가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할

아버지공장 카페는 지난 50년간 염색 공장과 자동차 공업사로 사용되다가 도시재생과 함께 2030 세대의 창의력이 더해져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으로 “윤 후보가 추구하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라는 취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가 먼저 제시한 화두는 코로나19의 충격을 혁신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었다. 윤 후보는 포스트코로나 대응 위원회 신설과 필수 의료 공공책임제 도입을 통해 더 큰 의료적 재앙에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나눔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며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하고 임대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임대료와 공과금에 쓰인 금융대출의 절반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저성장·저출생·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해법 중 눈에 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녀 출생 시 1년 간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공약이었다. 윤 후보는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고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한국 경제에 고질적인 저성장 극복 방법으로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 경제’를 언급하며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여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시장 경제의 위기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영터리 부동산 대책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복지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홍삼제품 + 3만여개 인기상품 + 자체상품 등록 판매 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 소유 햇터그룹

대한홍삼주식회사/㈜햇터라이프 T.010-4480-0045